

## 노년기 부부역할에 따른 부부교육요구에 관한 연구\*

홍달아기<sup>†</sup> · 박 경 옥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아동복지학과

### A Study on the Needs of Couple Education According to Couple Role of Elder

Hong, Dal-Ah-Gi<sup>†</sup> · Park, Kyoung-ok

Dept. Of Family & ChildWelfare. Major of Family & ChildWelfare, Wonkwang University

#### Abstract

As the lifespan has been expanded, the marital relationship later in life is getting more important.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the demand for the education of marital couples to improve this relationship. The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for elder coup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Couple role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can be divided into traditional and modern roles. And these variables are shown to be significant in couple role. 2. Need for the education of married couple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 case of spouses having shorter marriage period, religion, and a nuclear family, and doing social activities, the necessity of education is recognized highly. Those who have a spouse with good health and social activities have experienced a chance to attend the educational program. It is thought that health and social activities have much to do with active living attitude. In case of old age, it can be thought that they don't feel the necessity because they have lived a decent life for a long time. It is just that it comes from the fixed ideas of elder couples who had to spend only a short time with their spouses. That is what elder couples have to overcome. They tend to think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i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spouses, and they put family relationship before the quality of their own lives. 3. Influence of the need for the education of married couples according to their role. As their role are becoming modern and their mutual trust, affinity, and cohesion are getting more important, the education of married couples and the experiences of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al program are thought to be more necessary.

**Key Words** : marital relationship, later in life, elder couples, educational programs

---

\*본 연구는 2003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sup>†</sup>Corresponding author : M.P : 018-797-7000 E-mail : dalhong@wonkwang.ac.kr

## 1. 서 론

본 연구는 노년기 생활주기가 연장됨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노년기 부부관계의 증진을 위해 노인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역할과 이들 변인에 따른 부부교육요구는 어떠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적·경제적인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1970년대 후반 이후 제기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OECD의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990년에는 전체 인구 중 약 12.5%이었지만 201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30년에는 약 24.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OECD, 2004).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도에 노령화 사회에는 이미 진입하였으며 노령사회는 2019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나 그 시기는 더 앞당겨질 가능성 높다. 현재 우리나라 노령화 추세는 1960년에 65세 이상 노년층이 3.3%에 불과했던 것이 1990년에는 5%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7%, 2020년에는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현상은 노년인구의 증가만이 아니라 노년기의 장기화에 따른 질병과 건강관리 문제, 역할 상실문제, 고독 및 소외문제, 노인부양 및 보호문제, 긴 여가시간의 문제, 경제적 빈곤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빈도는 점차 높아져 노인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노부모의 부양의식 약화와 노인 스스로의 독립의식으로 노인들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자녀와 별거를 희망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어서 자녀출가, 정년퇴직 이후 노부부끼리 지내게 되는 부부노년기가 연장되고 있다.

전반적인 가족생활주기의 변화는 막내자녀의 독립을 끝낸 이후의 '빈 둥우리시기(empty nest)'가 과거에 비해 훨씬 길어지면서 노년기에 부부가 함께 생활해야 할 기간도 늘어나게 됨(김태현, 1995)에 따라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본다.

과거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 부부관계는 그다지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다. 즉 한국 가족에서 중심적인 가족관계는 부자관계에 있었으며 부부관계는 부자관계를 위한 관계로서 부차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김태현, 1993). 그러나 오늘날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의 등장과 같은 사회변화로 부부관계는 가족관계 중 가장 중요한 관계로 부각되고 있다.

노년기의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일 뿐 아니라 몸이 아플 때 최우선의 가족부양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노인의 결혼만족도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행복, 건강, 장수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Connidis, 1989; Gilford, 1986). 요즘 황혼기의 이혼이 노인문제 중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어서 노인의 부부관계와 결혼만족도 등을 검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노년기의 부부관계를 강화시키는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실정이다.

노년기는 생활범위가 가족으로 축소되어 부부나 자녀 등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에 영향력이 크다. 특히 노년기의 연장으로 노부부간의 만족도가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혼관계는 노부부들의 내적인 안정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상호의존도가 매우 증가하는 시기로서 배우자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며(김태연·전길양, 1997), 배우자와의 만족스런 관계는 생의 마지막 단계를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우리보다 일찍 노령화를 경험한 서구 사회에서는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년기 결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노부부의 결혼특성, 결혼만족을 이루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장기결혼을 유지하거나 충족하게 하는 요인들의 탐색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들 연구들(Lee, 1978; Anderson, et.al., 1993; Tower et.al., 1996)은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오면서 장기간의 결혼생활을 한 노부부가 다른 연령층보다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며 비교적 높은 결혼만족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부부의 심리적 적응은 결혼관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노년기에 대한 연구들은 노인질환, 복지정책 및 복지사업, 건강, 교육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집중되어 왔으며(신화용, 1995) 지금까지 행해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부부가 지각한 결혼만족이나 적응을 본 연구(김태현·전길양, 1997; 김혜경, 1996; 김수현, 1999),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나 은퇴 후 남편과 부인이 지각하는 부부관계를 살펴본 연구(신화용·조병은, 1997; 이신숙, 1997) 그리고 노년기 부부의 갈등이나 의사소통, 자아통합감, 생활만족도 등을 살펴 본 연구(전길양 외, 1998; 홍제영, 1999; 송영미, 2000; 김선우, 2002)들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노년기 연장에 따른 노년기 부부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노년기 부부관계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볼 때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노인의 요구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부부가 함께 노후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더욱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사회, 심리적 적응과 행복감이 높다(Lopata, 1973)는 점을 고려하여 노년기 부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배우자가 있는 노부부들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역할과 결혼만족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노년기 부부교육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람직한 노년기 부부관계 향상과 안정을 위한 요인을 찾아내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노년기 부부관계증진교육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노년기 부부관계 형성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년기 부부역할

#### 1) 부부역할

역할(role)이란 어떠한 지위에 있는 각 개인에게

맡겨진 행동규준이며 개인이 어떤 지위를 차지했을 때 그 지위에 주어지는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지위란 흔히 말하는 권력이나 명예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사회 구조 내에서 타인과 접촉하며 살아가는 과정 중 얻게 되는 보편적인 법적, 사회적 혹은 전문적인 위치를 말한다(유영주, 1990).

가족집단 역시 사회의 일부분이므로 가족원은 가족 내의 관계구조상 일정한 지위를 획득하며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양식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기대되는 행동양식이나 규준이 바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된다. 이와 같이 역할은 그의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하나 이상의 특수한 활동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개념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속에 포함된 다른 사람들이나 사물들과의 관계(Freedman, 1974)를 말하는 것처럼 부부역할도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기대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경제적 생산, 자녀교육, 지위 부여, 오락, 보호, 애정, 종교 훈련 등의 역할이 중요하였으나 산업화와 전문화 등의 사회적 변화에 수반된 비혈연조직(nonkinship system)의 증가로 인하여 애정이라는 역할이 중시되고 나머지 역할들은 다른 제도로 이전되고 있다고 하였다.

부부의 역할에 대한 영역은 5개영역(옥선화, 1980; 유시중·박경규, 1982; 신혜섭, 1985), 6개영역(유영주, 1996; 이미숙, 1990), 7개영역(최신태, 1972), 10개영역(최규련, 1988) 등 다양하지만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비슷한 역할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애정 및 성적 역할, 오락 역할, 동반자적 역할, 치료적 역할, 경제적 역할, 가사역할, 자녀교육 및 양육역할, 친척에 대한 역할, 대외적인 역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역할을 분석해보면 이미숙의 부부화합 영역은 성 및 애정역할과 정서적 지지역할로 구성되어 있고 옥선화의 부부역할에는 성 및 애정 역할과 정서적 지지역할이 제외되어 있으며, 최규련의 동반자적 역할은 유영주의 성 및 애정 역할에, 치료적 역할과 직업이해 역할은 정서적 지지역할로, 그리고 남편의 직업 활동 영역은 경제적 역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농촌가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유영주(1996)의 연구에서 오락의 역할은 정서적 지지와 동일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한편 농촌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서광희, 1992)에서는 부부의 역할영역을 성 및 정서, 자녀 및 경제, 가사, 친족 관계영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부역할 선행 논문(최재석, 1971; 류시중, 1975; 장혜영, 1981; 김미숙, 1989; 정영희, 1992; 김순주, 1994; 박진옥, 1994; 홍은정, 1995; 정봉선, 1997)의 연구 결과에서 부부간의 역할 공유도가 높은 영역은 대외적·여가·자녀 양육과 사회활동이고, 역할 공유도가 낮아 부부간의 역할분화를 보이는 영역은 경제활동과 가사활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부부역할이 과거의 전통적 관념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측면을 고수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역할구분이 분명함을 보여주지만 부분적으로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민주적인 역할구조를 보이고 있는 사실 또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2) 노년기 부부역할

노년기가 되면 가족생활주기 상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자녀가 자립이나 결혼을 하게 되어 부모를 떠나게 되며, 배우자는 직장을 은퇴하게 됨에 따라 가정에서 주된 생활을 하게 된다. 이 시기의 여성은 자녀가 독립하여 빈둥우리가 되는 시기로 자녀의 진수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게 되는데 이는 남편의 애정과 동지애를 상실할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Troll, 1975). 또 자녀가 모두 독립하면서 빈둥우리시기를 맞이한 부부는 부모로서의 역할에 몰두하면서 소원해졌던 부부간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방법을 각자 개발하고 학습해야 한다. 따라서 부부간의 역할과 취미를 공유하면서 적절한 상호작용 방식을 재수립, 부부 상호간 지지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교육을 통해 부부관계의 유지나 종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김경신, 1996). 한편 남성들은 그 동안 외부로 향했던 관심을 가정 안으로 돌리게 됨으로써 또 다른 적응이 요구되기도 한다.

노년기의 부부는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나 그들만이 남게 되는 가족생활주기가 되면 노년기 연장으로 인해 오게 되는 변화에 재적응을 해야 한다. 이 시기 이후에는 부부간의 역할이 바뀌게 되는 '역할전환'을 경험하며, 이러한 역할변화를 예상하고 서로 잘 적응하는 것은 노년기 안정된 부부역할과 관계가 깊어(김태현, 1994) 노년기의 부부역할 전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부부간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가장 엄격하게 구분지어서 행동하는 시기는 부모노릇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중장년기이며 노년기에는 전통적인 성역할은 거의 구분하지 않고 중성화된다고 보고 있다.

Medly(1976)는 노년부부의 세 가지 유형을 부부역할에 초점을 두어 분류하고 있다. 첫째, 친밀감을 강조하고 관계의 특성을 공유하며 반드시 다른 역할을 배제하지는 않으나 부부의 역할에 결혼의 초점을 두는 부부중심형(husband-wife)과 둘째, 배우자 중 한 사람은 부모 역할을 또 한 사람은 자녀 역할을 하면서 보호와 양육, 지배와 순종, 의존성의 특성을 갖는 부모-자녀형(parent-child)과 종합되어 부부관계 영속성을 증진시키는 동료형(associa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앞으로의 바람직한 부부역할은 친구와 같은 역할을 지향하고 있으며 노년기의 주기 상 역할전환에 따른 부부역할 재적응이 안정된 노후생활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2. 부부교육

부부는 한 가족을 형성하며 가족관계의 핵을 이루며 가족관계의 기본이 되므로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교육은 결혼관계 향상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가족생활교육 영역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부관계는 성숙한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결합되는 관계로서, 육체적 결합은 물론 정신적·심리적·정서적·경제적 결합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며,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관계이지만 부부가 되는 것은 우리의 기대만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며 친밀한 부부관계 또한 자연히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각 개인이나 부부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즉 내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Satir, 1972)고 보았다. 따라서 부부관계도 교육에 의해 부부가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개발하여 부부성장과 부부관계의 질 향상, 그리고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 부부를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과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년기 부부 (김명자·송말희, 1988; 송정아, 1996; 김영자, 1998; 이정희·옥선화, 1999; 이주미, 2001)

신혼기부부 프로그램(최혜경·노치영·박의순·1994; 유은희·정현숙, 1995), 예비부부(박미성·김득성, 1997)와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조은숙·고선주·옥선화, 1998)과 대상을 구분하지 않은 부부교육 프로그램(조선경, 1989; 정석희, 1992; 김주혜, 1994; 오윤자·유영주, 1994; 이창숙·유영주, 1998; 정현숙, 1998; 김순옥, 2001; 이성희, 2002; 최규련, 2002), 유아기 가족 부부의 교육프로그램(방현주·이기숙, 2002)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내용은 신혼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부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부부간의 사랑, 부부간 지각의 차이와 문제해결방식 차이 인식, 의사소통, 결혼관과 부부의 역할, 성 등을 교육하였다.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부교육 내용으로는 결혼에 대한 기대, 서로에 대한 이해, 역할기대, 의사소통(듣기/말하기, 친밀감), 갈등해결, 성, 재정관리를 교육하였다. 맞벌이 가족 대상 부부교육 내용은 역할긴장의 원인이해, 가족체계의 강화전략, 가사/육아분담전략, 시간관리전략, 역할 줄이기 전략, 바람직한 직업관/가족관정립의 주제로 교육하였다. 중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 늙어가는 배우자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 노화에 대한 심리적 준비라는 주제로 노년기의 전반적인 교육이 실시되었고 또 다른 연구는 서로에 대한 이해, 듣기 기술과 말하기 기술, 갈등해결, 관계 재정립으로 구성하였고, 대상을 구분하지 않은 부부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부부관계 이해하기, 배우자 마음공감, 건설적 감정표현 인정해주기, 갈등

해결 기술, 의사소통, 친밀성 훈련, 칭찬·격려 받아들이기, 자아인식, 성역할, 결혼관, 부모자녀관계 등, 대화상태의 이해와 대화개선의 필요성 인식, 대화를 통한 마음 검토 및 조정, 효율적으로 말하기, 적극적으로 듣기, 바람직한 대화법, 행복을 위한 욕구 다루기, 결혼생활과 질적인 세계, 좋은 상황 내 것으로 만들기, 건강한 감정적 상호작용<sup>1·2</sup>, 바람직한 문제 해결의 내용으로 교육하였다.

지금까지의 부부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교육 내용은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중심의 교육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보아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방식이 부부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인을 알 수 있다. 교육 대상은 신혼기와 중년기에 관한 교육에 편중된 경향을 갖으며, 노년기 부부가 제외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노년기 부부는 오랜 세월 적응해왔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을 적게 지각했거나 잘 적응하고 있는 관계로 간주되어 연구영역에서 제외되어 온 경향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노년기의 배우자는 일생의 동반자일 뿐 아니라 노인의 결혼만족도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행복, 건강, 장수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Connidis, 1989; Gilford, 1986)되고 있어서 노년기 부부교육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 III.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노인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부부역할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노인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부부교육요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노인의 부부역할이 부부교육요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년기 부부역할과 부부교육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측정도구는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척도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전체 3부분으로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부부역할, 부부교육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1)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조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선행연구의 의미있는 변인을 추출하여 성별, 나이, 학력, 결혼생활년수, 종교, 은퇴 전 직업, 현재의 직업, 본인의 건강상태, 배우자의 건강상태, 가족형태, 주관적 생활수준, 월수입, 생활비관리, 사회활동 등의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부부역할

부부역할을 측정하는 척도는 이성희(1996), 권희완(1992)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바탕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 내용은 집안일의 결정권, 주부의 사회활동, 남편의 집안일, 경제적 부양, 남녀 동등한 집안일, 직업주부의 가사일, 남편보다 능력 있는 아내, 가정일의 남녀 구분이 있고 각 문항은 5점 Likert 방식을 적용하여 '매우 그렇다'를 5점,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역할이 전통적임을 나타내고, 점수가 낮을수록 근대적임을 나타낸다.

### 3) 부부교육요구

노년기 부부들의 부부교육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여성연(1994), 남현숙(1999)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육필요성, 교육내용, 교육내용의 중요도, 참여경험유무, 참여의향, 교육시간대, 교육량, 교육진행방식, 부부공동참여의향, 부부공동불참여유를 내용

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3년 8월 전북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배우자가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노인의 범위는 연령에 따라 55-64세까지를 연소노인(young-old), 65-74세까지를 중·고령노인(middle-old), 75세 이상의 노인을 고령노인(old-old)으로 구분(Neugarten, 1974)하고 있으나 현대는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노년기에 대한 관심을 일찍부터 갖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50세 이상, 배우자가 있는 부부들로 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본 연구자와 훈련받은 조사자들이 대상자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명으로 구성된 조사자는 W대학교 전공 관련 대학원생으로 이들에게 본 연구 목적과 내용, 조사방법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한 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3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총 380부를 배부하여 355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실기재이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된 질문지를 제외한 총 326(남자 151명, 여자 175명)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10.0 Program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한 다음, 연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문제(1)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부부역할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2)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교육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ANOVA검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역할

노년기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역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ANOVA검증,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

하였다. 부부역할은 전통적인 역할과 근대적인 역할로 이분하여 봤으며,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그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생활년수, 종교, 가족형태, 월수입, 사회활동에 따라서는 양역할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은퇴 전 직업, 현재의 직업, 본인의 건강상태는 전통적부부역할에,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근대적부부역할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역할

변인	구분	전통적 부부역할		근대적 부부역할		변인	구분	전통적 부부역할		근대적부부역할	
		M	SD	M	SD			M	SD	M	SD
성별	여자	3.04	0.62	3.87	0.83	본인 건강 상태	나쁜편이다	3.31 b	0.56	3.52	0.89
	남자	3.12	0.62	3.53	0.94		보통이다	3.02 a	0.60	3.77	0.89
							좋은편이다	3.07 a	0.66	3.79	0.90
	T(P)	12.178(0.030)		3.481(0.001)			F(P)	5.647(0.004)		2.513(0.083)	
연령	50세~60세	2.94 a	0.59	3.81 b	0.85	배우 자의 건강 상태	나쁜편이다	3.21	0.53	3.47	0.86 a
	61세~70세	3.29 b	0.54	3.70 b	0.88		보통이다	3.12	0.65	3.87	0.86 b
	71세 이상	3.41 b	0.67	3.38 a	1.03		좋은편이다	3.01	0.65	3.75	0.94 b
	F(P)	18.579(0.000)		4.626(0.010)			F(P)	2.841(0.060)		5.461(0.005)	
학력	초졸 이하	3.42 c	0.58	3.48 a	0.94	가족 형태	부부가족	3.19 ab	0.69	3.76	1.00 b
	중졸	3.06 b	0.55	3.88 b	0.70		핵가족	2.98 a	0.54	3.80	0.75 b
	고졸	2.95 b	0.62	3.85 b	0.89		확대가족	3.24 b	0.49	3.28	0.80 a
	대학 이상	2.68 a	0.49	3.66 ab	1.08		기타	3.06 ab	0.57	3.54	0.86ab
	F(P)	19.866(0.000)		4.239(0.006)			F(P)	3.159(0.025)		3.204(0.023)	
결혼 생활 년수	15년~19년	3.04 a	0.57	4.00 b	0.60	주관 적 생활 수준	잘사는편이다	2.95	0.75	3.86	0.90
	20년~29년	2.78 a	0.55	3.88 b	0.89		보통이다	3.10	0.59	3.73	0.94
	30년~39년	3.04 a	0.54	3.83 b	0.81		어려운편이다	3.21	0.63	3.61	0.78
	40년~49년	3.35 b	0.58	3.62 ab	0.93						
	50년 이상	3.47 b	0.64	3.25 a	0.96						
	F(P)	15.825(0.000)		5.265(0.000)			F(P)	2.194(0.113)		1.019(0.362)	
은퇴 전의 직업	노동·기타(무직)	3.25ab	0.63	3.70 a	0.97a	월 수입	50만원 미만	3.36 a	0.64	3.51 a	0.98
	제조업·공업·광업	3.13 ab	0.66	4.30 ab	0.82		51만원~80만원	3.10 ab	0.54	3.70 ab	0.76
	농·임·축·수산업	3.47 b	0.64b	3.63 a	1.00		81만원~110만원	3.05 a	0.61	3.85 ab	0.89
	서비스업	2.86 a	0.67	3.81 a	0.80		111만원~140만원	3.05 a	0.61	3.73 ab	0.92
	사무직	2.88 a	0.55	3.87 a	0.86		141만원~170만원	2.97 a	0.52	3.62 a	1.05
	행정직·전문기술직	2.71 a	0.55	4.75 b	0.50		171만원~200만원	2.86 a	0.54	4.13 b	0.55
	전문직	2.81 a	0.57	4.00 ab	0.94		200이상	2.82 a	0.64	3.92 ab	0.82
		F(P)	6.321(0.000)		1.784(0.104)			F(P)	5.463(0.000)		2.367(0.030)

현재의 직업	노동·기타(무직)	3.11	ab	0.66	3.65	0.94	생활비판리	남	편	3.29	0.76	3.75	0.96	
	제조업·공업·광업	3.09	ab	0.46	3.77	0.81		아	내	3.05	0.58	3.69	0.88	
	농·임·축·수산업	3.32	b	0.63	3.85	0.76		자	녀	3.03	0.46	3.25	1.04	
	서비스업	2.98	ab	0.53	3.68	0.96		기	타	3.11	0.56	4.25	0.45	
	사무직	2.94	ab	0.64	3.36	0.81								
	행정직·전문기술직	3.00	ab	0.58	3.25	1.50								
	전문직	2.63	a	0.54	3.00	1.00								
F(P)		2.225(0.041)		1.320(0.248)		F(P)		2.608(0.052)		2.43(0.083)				
종교	있다	3.04		0.63	3.83	0.81	사회활동	그	렇	다	2.96	0.62	3.93	0.92
	없다	3.19		0.61	3.55	0.99		아	니	다	3.16	0.62	3.64	0.88
	T(P)	-2.112(0.035)		2.702(0.007)		T(P)		-2.544(0.001)		2.584(0.010)				

서비스업(판매업, 운수업, 상업 등) 행정관리직(고급공무원, 회사 중역 등)  
 사무직(은행원, 회사원, 공무원 등) 전문기술직(예술가, 설계가, 저술가 등)  
 전문직(학자, 의사, 변호사, 교사 등)

※Duncan의 사후검정: 같은 문자가 있는 열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 $\alpha=0.05$ )

성별에 따른 부부역할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전통적,  $P=0.030$ ; 근대적,  $P=0.001$ ) 남자( $M=3.12$ )가 여자( $M=3.04$ )보다 전통적부부역할이 높고 여자( $M=3.87$ )가 남자( $M=3.53$ )보다 근대적부부역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부부역할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전통적,  $P=0.000$ ; 근대적,  $P=0.010$ ) Duncan의 사후 검정 결과, 61세 이상( $M=3.41$ )이 60세 이하( $M=2.94$ )보다 전통적부부역할이 높고, 70세 이하( $M=3.81$ )가 71세 이상( $M=3.38$ )보다 근대적부부역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근대적부부역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부부역할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전통적,  $P=0.000$ ; 근대적,  $P=0.006$ ) Duncan의 사후 검정 결과 초졸이하( $M=3.42$ )가 중졸 이상( $M=2.68$ )보다, 중졸과 고졸이( $M=3.06$ ) 대학이상( $M=2.68$ )보다 전통적부부역할이 더 높고, 중졸과 고졸이( $M=3.88$ ) 초졸 이하( $M=3.48$ )보다 근대적부부역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근대적부부역할의 경향을 갖는다.

결혼생활년수에 따른 부부역할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전통적,  $P=0.000$ ; 근대적,  $P=0.000$ )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40년 이상( $M=3.47$ )이 39년 이하( $M=2.78$ )보다 전통적부부역할이 더 높고, 39년 이하( $M=4.00$ )가 50년 이상( $M=3.25$ )보다 근

대적부부역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생활년수가 짧을수록 근대적 부부역할을 보였다.

종교에 따라서는 부부역할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전통적,  $P=0.035$ ; 근대적,  $P=0.007$ ),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 $M=3.19$ )이 전통적부부역할이 더 높게 나타나 종교가 부부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은퇴 전 직업에 따른 전통적부부역할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 ). Duncan의 사후 검정 결과,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에 종사했던 사람( $M=3.47$ )이 서비스업, 사무직, 행정관리직·전문기술직( $M=2.71$ )에 종사했던 사람보다 전통적부부역할이 더 높았다.

현재의 직업에 따라서도 전통적부부역할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41$ ). Duncan의 사후 검정 결과,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M=3.32$ )이 전문직( $M=2.63$ )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전통적부부역할이 더 높았다.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전통적부부역할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4$ ). Duncan의 사후 검정 결과, 건강이 나쁜편이다( $M=3.31$ )라고 응답한 사람이 보통이다와 좋은편이다( $M=3.02$ )라고 응답한 사람보다 전통적부부역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근대적부부역할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5$ ). 건강이 좋은편이다



(M=3.75)라고 응답한 사람이 보통이다와 나쁜편이다(M=3.47)보다 근대적부부역할이 더 높았다. 건강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부부역할은 근대적임을 보여준다.

가족형태에 따른 부부역할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전통적, P=0.025; 근대적, P=0.023) Duncan의 사후 검정 결과, 확대가족(M=3.24)이 핵가족(M=2.98)보다 전통적부부역할이 높고 핵가족, 부부가족(M=3.80)이 확대가족(M=3.28)보다 근대적부부역할이 더 높다. 즉, 핵가족의 형태가 근대적부부역할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월수입에 따른 부부역할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전통적, P=0.000; 근대적, P=0.030) Duncan의 사후 검정 결과, 50만원 미만(M=3.36)이 80만원 이상(M=2.82)보다 전통적 부부역할이 더 높고, 171만원~200만원이상(M=4.13)이 50만원 미만 그리고 141만원~170만원(M=3.51)보다 근대적부부역할이 더 높다. 월수입이 높을수록 근대적 부부역할의 경향임을 말해준다.

사회활동에 따른 부부역할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전통적, P=0.001; 근대적, P=0.010) 사회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M=3.16)이 전통적부부역할이 더 높고,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M=3.93)이 근대적부부역할이 더 높아 사회활동이 부부역할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은 부부역할에 유의한 변인이며, 성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남성이면서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고, 결혼년수가 길수록, 종교가 없는 경우, 과거나 현재의 직업이 농축산업에 종사할 경우, 본인의 건강상태가 나쁘고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전통적부부역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여성이면서,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년수가 짧을수록, 핵가족을 이루고, 종교를 갖는 경우 근대적부부역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교육 요구

노년기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부교육 요구의 하위영역별 분석결과와는 다음과 같다.

-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교육 필요성  
부부교육 요구의 하위영역 중에서 부부교육 필요성을 살펴보면 【표2-1】과 같다.

【표2-1】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부부교육 필요성

변인	구분	평균값	표준편차	F(T)	P
연령	50세~60세	3.85 b	0.75	10.745	0.000
	61세~70세	3.61 b	1.00		
	71세 이상	3.18 a	1.27		
결혼 생활 년수	15년~19년	3.92 b	0.51	8.451	0.000
	20년~29년	3.88 b	0.70		
	30년~39년	3.79 b	0.81		
	40년~49년	3.70 b	1.01		
	50년 이상	3.02 a	1.26		
종교	있다	3.79	0.90	6.124(T)	0.014
	없다	3.53	0.99		

현재 의 직업	노동·기타(무직)	3.49 a	1.02	2.340	0.032
	제조업·공업·광업	3.91 ab	0.68		
	농·임·축·수산업	3.83 ab	1.05		
	서비스업	3.75 ab	0.81		
	사무직	3.91 ab	0.54		
	행정직·전문기술직 전문직	4.25 ab 4.40 a	0.50 0.55		
본인 건강 상태	나쁜편이다	3.42 a	1.06	3.978	0.020
	보통이다	3.79 b	0.92		
	좋은편이다	3.73 b	0.86		
배우자의 건강 상태	나쁜편이다	3.41 a	1.03	5.366	0.005
	보통이다	3.77 b	0.94		
	좋은편이다	3.81 b	0.84		
가족 형태	부부가족	3.62 ab	1.08	3.141	0.026
	핵가족	3.81 b	0.74		
	확대가족	3.28 a	1.16		
	기타	3.88 b	0.86		
생활비관리	남	3.76 ab	1.05	2.863	0.037
	아	3.64 a	0.91		
	자	3.25 a	1.16		
	기	4.33 b	0.49		
사회활동	그	3.99	0.72	12.625(T)	0.000
	아	3.57	1.00		

※Duncan의 사후검정: 같은 문자가 있는 열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 $\alpha=0.05$ )

연령에 따른 부부교육필요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 ). Duncan의 사후 검정결과는 70세 이하( $M=3.85$ )가 부부교육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결혼생활년수에 따른 부부교육 필요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0$ ). Duncan의 사후 검정결과는 49년 이하( $M=3.92$ )가 부부교육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종교에 따른 부부교육 필요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4$ ). 즉,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M=3.79$ )이 부부교육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의 직업 따른 부부교육 필요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32$ ). Duncan의 사후 검정결과 전문직( $M=4.40$ )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부교육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부부교육 필요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20$ ).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건강이 보통이다( $M=3.79$ )와 좋은편이다( $M=3.73$ )라고 응답한 사람이 부부교육 필요성을 높

게 인식하였다.

배우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부부교육 필요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5$ ). Duncan의 사후 검정 결과, 배우자의 건강이 보통이다( $M=3.77$ )와 좋은편이다( $M=3.81$ )라고 응답한 사람이 부부교육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가족형태에 따른 부부교육 필요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26$ ). Duncan의 사후 검정결과 핵가족( $M=3.81$ )과 기타( $M=3.88$ )형태의 사람들이 부부교육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관리 따른 부부교육 필요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37$ ). Duncan의 사후 검정결과, 자신의 가족이 아닌 기타( $M=4.43$ )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부부교육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기타가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의 연구에서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활동에 따른 부부교육 필요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0$ ). 즉,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M=3.99)이 부부교육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연령, 결혼생활년수, 사회활동 여부가 부부교육요구에 가장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생활년수가 짧을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 행정.전문직인 직업, 건강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 배우자의 건강도 좋다고 느끼는 사람, 핵가족,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가 노년기 부부교

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교육에 대한 요구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교육 참여경험유무 부부교육 요구의 하위영역 중에서 부부교육 참여 경험유무를 살펴보면 【표 2-2】 과 같다.

【표2-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교육 참여경험유무

변인	구분	참여했음	참여 안했음	$\chi^2$	P
배우자의 건강상태	나쁜편이다	1( 1.1)	94(98.9)	10.475	0.005
	보통이다	13(11.1)	104(88.9)		
	좋은편이다	15(13.2)	99(86.8)		
생활비 관리	남편	13(18.1)	59(81.9)	11.579	0.009
	아내	14( 6.0)	220(94.0)		
	자기		8(100.0)		
	기타	2(16.7)	10(83.3)		
사회활동	그렇다	12(14.1)	73(85.9)	3.869	0.049
	아니다	17( 7.1)	224(92.9)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부부교육 참여경험유무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5). 즉, 배우자의 건강이 좋은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부부교육에 대한 참여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비관리에 따른 부부교육 참여경험유무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9), 남편이 관리하는 경우와 기타의 경우가 부부교육 참여경험이 많았다.

사회활동에 따른 부부교육 참여경험유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49),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

부부교육 참여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의 부부교육참여경험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참여의 기회가 적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참여경험 유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부부교육 참여의향 부부교육 요구의 하위영역 중에서 부부교육 참여 의향을 살펴보면 【표2-3】 과 같다.

【표2-3】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부부교육 참여의향

변인	구분	참여함	참여안함	$\chi^2$	P
연령	50세~60세	144(77.8)	41(22.2)	38.107	0.000
	61세~70세	56(62.2)	34(37.8)		
	71세 이상	16(32.0)	34(68.0)		
최종 학력	초졸 이하	54(50.0)	54(50.0)	22.283	0.000
	중졸	62(70.5)	27(29.5)		
	고졸	70(74.5)	24(25.5)		
	대학 이상	30(85.7)	5(14.3)		

결혼 생활 년수	15년~19년	8(66.7)	4(33.3)	39.322	0.000
	20년~29년	72(84.7)	13(15.3)		
	30년~39년	75(70.8)	32(29.2)		
	40년~49년	44(62.0)	27(38.0)		
	50년 이상	17(33.3)	34(66.7)		
종교	있다	140(74.1)	49(25.9)	12.654	0.000
	없다	75(55.1)	61(44.9)		
은퇴전의 직업	노동·기타(무직)	33(58.9)	23(41.1)	16.744	0.010
	제조업·공업·광업	7(70.0)	3(30.0)		
	농·임·축·수산업	36(58.1)	26(41.9)		
	서비스업	19(73.1)	7(26.9)		
	사무직	41(89.1)	5(10.9)		
	행정직·전문기술직 전문직	4(100.0) 7(70.0)	3(30.0)		
현재 의 직업	노동·기타(무직)	84(56.4)	65(43.6)	14.544	0.024
	제조업·공업·광업	17(77.3)	5(22.7)		
	농·임·축·수산업	49(73.1)	18(26.9)		
	서비스업	29(65.9)	15(34.1)		
	사무직	9(81.8)	2(18.2)		
	행정직·전문기술직 전문직	4(100.0) 5(100.0)			
본인 건강 상태	나쁜편이다	41(51.9)	38(48.1)	9.627	0.008
	보통이다	91(70.5)	38(29.5)		
	좋은편이다	84(71.2)	34(28.8)		
배우자의 건강 상태	나쁜편이다	50(52.6)	45(47.4)	12.422	0.002
	보통이다	80(68.4)	37(31.6)		
	좋은편이다	86(75.4)	28(24.6)		
가족 형태	부부가족	97(62.6)	58(37.4)	14.753	0.002
	핵가족	89(76.7)	27(23.3)		
	확대가족	12(41.4)	17(58.6)		
	기타	18(69.2)	8(30.8)		
월 수입	50만원 미만	59(58.4)	42(41.6)	20.354	0.002
	51만원~80만원	41(73.2)	15(26.8)		
	81만원~110만원	29(55.8)	23(44.2)		
	111만원~140만원	13(50.0)	13(50.0)		
	141만원~170만원	24(82.8)	5(17.2)		
	171만원~200만원 200이상	20(87.0) 30(78.9)	3(13.0) 8(21.1)		
생활비 관리	남편	54(75.0)	18(25.0)	12.883	0.005
	내녀	153(65.4)	81(34.6)		
	자녀	1(12.5)	7(87.5)		
	기타	8(66.7)	4(33.3)		
사회활동	그렇다	68(80.0)	17(20.0)	9.712	0.002
	아니다	148(61.4)	93(38.6)		

연령에 따른 부부교육 참여의향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교육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교육 참여 학력에 따라서 부부교육 참여의향은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P=0.000$ ). 즉,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교육 참여의향이 높았다.

결혼생활년수 따른 부부교육 참여의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0$ ). 즉, 결혼생활년수가 짧을수록 부부교육 참여의향이 높았다.

종교에 따른 부부교육 참여의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00$ ), 종교가 있는 사람이 부부교육 참여의향이 높았다.

은퇴 전 직업에 따른 부부교육 참여의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0$ ). 즉, 사무직, 행정직·전문기술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부부교육 참여의향이 높았다.

현재의 직업에 따른 부부교육 참여의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24$ ). 행정직·전문기술직,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부교육 참여의향이 높았다.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부부교육 참여의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8$ ).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은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부부교육 참여의향이 높았다.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부부교육 참여의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2$ ).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보통이다와 좋은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부부교육 참여의향이 높았다.

가족형태에 따른 부부교육 참여의향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2$ ). 부부가족, 핵가족, 기타 형태

인 집단이 부부교육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른 부부교육 참여의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2$ ). 월수입이 높은 집단이 부부교육 참여의향이 높았다.

생활비 관리에 따른 부부교육 참여의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5$ ). 즉, 생활비 관리를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집단과 기타가 하는 집단이 자녀가 하는 집단보다 부부교육 참여의향이 높았다.

사회활동에 따른 부부교육 참여의향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02$ ), 사회활동을 하는 집단이 부부교육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부부교육 참여의향은 연령, 학력, 결혼생활년수, 종교와 가장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다른 변인들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생활년수가 짧을수록, 종교가 있는사람, 행정.전문직인직업, 건강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 배우자의 건강도 좋다고 느끼는 사람, 핵가족,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가 부부교육 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교육 참여의향은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이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4)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부부교육 시간대 부부교육 요구의 하위영역 중에서 부부교육 시간대를 살펴보면 【표2-4】와 같다.

【표2-4】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부부교육 시간대

변인	구분	오전9-12	오후1-4	오후3-6	오후6이후	$\chi^2$	P
연령	50세~60세	57(31.0)	46(25.0)	15(8.2)	66(35.9)	33.697	0.000
	61세~70세	21(23.9)	34(38.6)	15(17.0)	18(20.5)		
	71세 이상	17(37.0)	16(34.8)	12(26.1)	1(2.2)		
결혼 생활 년수	15년~19년	3(27.3)	4(36.4)	3(27.3)	1( 9.1)	38.494	0.000
	20년~29년	24(28.2)	18(21.2)	5( 5.9)	38(44.7)		
	30년~39년	25(24.0)	37(35.6)	11(10.6)	31(29.8)		
	40년~49년	25(36.2)	22(31.9)	11(15.9)	11(15.9)		
	50년 이상	18(36.7)	15(30.6)	12(24.5)	4(8.2)		
현재 의 직업	노동·기타(무직)	50(35.2)	48(33.8)	25(17.6)	19(13.4)	44.058	0.001
	제조업·공업·광업	5(22.7)	5(22.7)	2( 9.1)	10(45.5)		
	농·임·축·수산업	21(31.3)	21(31.3)	7(10.4)	18(26.9)		
	서비스업	7(15.9)	12(27.3)	6(13.6)	19(43.2)		
	사무직	2(18.2)	2(18.2)		7(63.6)		
	행정직·전문기술직	2(50.0)			2(50.0)		
	전문직		1(20.0)		4(80.0)		

가족 형태	부부가족	46(30.7)	53(35.3)	22(14.7)	29(19.3)	30.561	0.000
	핵가족	35(30.4)	25(21.7)	7( 6.1)	48(41.7)		
	확대가족	8(28.6)	9(32.1)	8(28.6)	3(10.7)		
	기타	6(23.1)	9(34.6)	5(19.2)	6(23.1)		
주관적 생활 수준	잘사는편이다	5(14.3)	18(51.4)	3( 8.6)	9(25.7)	14.055	0.029
	보통 이다	65(31.1)	60(28.7)	24(11.5)	60(28.7)		
	어려운편이다	25(33.3)	18(24.0)	15(20.0)	17(22.7)		
생활비 관리	남 편	31(44.3)	17(24.3)	12(17.1)	10(14.3)	19.561	0.021
	아 내	58(25.1)	75(32.5)	26(11.3)	72(31.2)		
	자 녀	3(37.5)	1(12.5)	1(12.5)	3(37.5)		
	기 타	3(30.0)	3(30.0)	3(30.0)	1(10.0)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부부교육 교육시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 ). 즉, 60세 미만의 사람들은 오후 6시 이후에 교육받기를 요구했다. 60세 미만은 사회활동이나 기타 낮동안의 활동이 있으리라고 추측할 때 저녁시간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노년기 교육은 저녁시간대를 택하는 것이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결혼생활년수에 따른 선호하는 부부교육 교육시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 ). 연령이 높고 결혼생활년수가 긴 사람들일수록 오전시간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직업에 따른 선호하는 부부교육 교육시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오후 6시 이후에 교육받기를 요구했다.

가족형태에 따라 선호하는 부부교육 교육시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 ). 즉, 핵가족의 가족

형태인 사람들은 오후 6시 이후에 교육받기를 요구했다. 부부가족의 경우는 오전시간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대가족의 경우 오후6시 이전의 시간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생활수준에 따라 선호하는 부부교육 교육시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29$ ).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오후 1-4시에 교육 받기를 요구했다

생활비 관리에 따라 선호하는 부부교육 교육시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21$ ). 따라서 교육 대상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5)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부부교육 교육량  
부부교육 요구의 하위영역 중에서 부부교육 교육량을 살펴보면 【표2-5】와 같다.

【표2-5】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부부교육 교육량

변인	구분	1시간미만	1-2시간	3-4시간	4시간 이상	기타	$\chi^2$	P
연령	50세~60세	76(41.3)	105(57.1)	1( 0.5)		2( 1.1)	19.573	0.012
	61세~70세	39(44.3)	47(53.4)	1( 1.1)	1( 1.1)			
	71세 이상	24(52.2)	17(37.0)	3( 6.5)		2( 4.3)		
최종 학력	초졸 이하	63(60.0)	36(34.3)	3(2.9)	1( 1.0)	2( 1.9)	35.970	0.000
	중 졸	42(48.3)	43(49.3)	1( 1.1)		1( 1.1)		
	고 졸	27(29.7)	62(68.1)	1( 1.1)		1( 1.1)		
	대학 이상	7(20.0)	28(80.0)					
본인 건강 상태	나쁜편이다	44(56.4)	30(38.5)	1( 1.3)	1( 1.3)	2( 2.6)	16.387	0.037
	보통 이다	55(43.7)	68(54.0)	1( 0.8)		2( 1.6)		
	좋은편이다	41(35.7)	71(61.7)	3( 2.6)				

배우자의 건강 상태	나쁜편이다		58(61.7)	32(34.0)	1( 1.1)	1( 1.1)	2( 2.1)	27.682	0.001
	보통이다		49(42.6)	65(56.5)	1(0.9)				
	좋은편이다		33(30.0)	72(65.5)	3(2.7)		2( 1.8)		
생활비 관리	남	편	29(41.4)	37(52.9)	2( 2.9)	1( 1.4)	1( 1.4)	52.315	0.000
		내	107(46.3)	120(51.9)	3( 1.3)		1( 0.4)		
	자	4(50.0)	2(25.0)			2(25.0)			
	기		10(100.0)						
사회활동	그	다	30(36.1)	48(57.8)	1( 1.2)		4( 4.8)	13.851	0.008
	아	니	110(46.6)	121(51.3)	4( 1.7)	1( 0.4)	불어보기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부부교육 교육량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2). 71세 이상의 사람들은 교육량을 1시간미만을 요구했다.

학력에 따라 선호하는 부부교육 교육량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학력이 고졸이상인 사람들은 교육량을 1-2시간을 요구했고, 초졸 이하는 사람들은 1시간미만을 요구했다.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선호하는 부부교육 교육량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7). 본인의 건강상태가 보통이다와 좋은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교육량을 1-2시간을 요구했다.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선호하는 부부교육 교육량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보통이다와 좋은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교육량을 1-2시간을 요구했고, 나쁜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1시간미만을 요구했다.

생활비관리에 따라 선호하는 부부교육 교육량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생활비관리를 기타가 관리하는 사람들은 교육량을 1-2시간을 원했다.

사회활동에 따른 선호하는 부부교육 교육량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8).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육량을 1시간미만을 요구했다.

이상의 결과는 노인의 교육량은 평균 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교육 시간과 방법에 융통성과 변화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부부교육 진행방식 부부교육 요구의 하위영역 중에서 부부교육 교육 진행방식을 살펴보면 【표2-6】과 같다.

【표2-6】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부부교육 진행방식

변인	구분	강사강의	토론 & 대화	강의 & 토론	기타	χ <sup>2</sup>	P
연령	50세~60세	34(18.5)	51(27.7)	96(52.2)	3( 1.6)	39.333	0.000
	61세~70세	34(38.6)	18(20.5)	36(40.9)			
	71세 이상	28(62.2)	3( 6.7)	14(31.1)			
결혼 생활 년수	15년~19년	4(36.4)	6(54.5)	1( 9.1)		46.564	0.000
	20년~29년	11(12.9)	19(22.4)	53(62.4)	2( 2.4)		
	30년~39년	25(24.0)	28(26.9)	50(48.1)	2( 1.0)		
	40년~49년	31(44.9)	15(21.7)	23(33.3)			
	50년 이상	25(52.1)	4( 8.3)	19(39.6)			

현재 의 직업	노동·기타(무직)	62(44.0)	21(14.9)	57(40.4)	1( 0.7)	34.943	0.010
	제조업·공업·광업	4(18.2)	4(18.2)	14(63.6)			
	농·임·축·수산업	15(22.4)	20(29.9)	30(44.8)	2( 3.0)		
	서비스업	8(18.2)	12(27.3)	23(52.3)	1( 2.3)		
	사무직	1( 9.1)	4(36.4)	6(54.5)			
	행정직·전문기술직 전문직		1(25.0)	3(75.0)			
			5(100.0)				
가족 형태	부부가족	55(36.7)	31(20.7)	62(41.3)	2( 1.3)	18.687	0.026
	핵가족	21(18.3)	31(27.0)	61(53.0)	2( 1.7)		
	확대가족	14(51.9)	5(18.5)	8(29.6)			
	기타	6(23.1)	5(19.2)	15(57.7)			
월 수입	50만원 미만	44(44.9)	22(22.4)	32(32.7)		31.778	0.023
	51만원~80만원	10(18.5)	11(20.4)	32(59.3)	1( 1.9)		
	81만원~110만원	16(32.0)	10(20.0)	24(48.0)			
	111만~140만원	5(19.2)	4(15.4)	17(65.4)			
	141만원~170만원	9(31.0)	9(31.0)	11(37.9)			
	171만원~200만원	3(13.0)	5(21.7)	14(60.9)	1( 4.3)		
	200이상	9(24.3)	11(29.7)	16(43.2)	1( 2.7)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부부교육 진행방식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 ). 71세 이상인 사람들은 진행방식을 주로 강사의 강의를 듣는 방법의 형태를 요구했다.

결혼생활년수에 따른 선호하는 부부교육 교육진행 방식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 ). 즉, 결혼생활년수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주로 강사의 강의를 듣는 방법의 형태를 요구했고, 15~19년인 사람들은 토론 및 대화를 나누는 방법의 형태를 요구했다.

현재의 직업에 따라 선호하는 부부교육 진행방식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0$ ). 노동·기타(무직)인 사람들은 주로 강사의 강의를 듣는 방법의 형태를 요구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강사의 강의와 토론을 함께 하는 방법의 형태를 요구했다.

가족형태에 따라 선호하는 부부교육 진행방식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26$ ). 확대가족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강사의 강의방식을 요구했고, 핵가족의 사람들은 강사의 강의와 토론을 함께하

는 방법을 요구했다.

월수입에 따라 선호하는 부부교육 진행방식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23$ ). 월수입이 50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주로 강사의 강의와 토론을 함께 하는 방법의 형태를 요구했다.

노인의 부부교육 진행방식은 가장 선호하는 것이 전문강사의 강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강의를 듣는 수동적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령이 낮고 결혼생활년수가 짧을수록 토론과 대화의 진행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융통성있는 프로그램 적용이 요구된다.

#### 7)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부부교육 부부 동반참여의향

부부교육 요구의 하위영역 중에서 부부교육 부부 동반참여의향을 살펴보면 【표2-7】과 같다.



【표2-7】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부부교육 부부동반참여의향

변인	구분	참여합	참여안함	$\chi^2$	P
연령	50세~60세	87(47.3)	97(52.7)	18.071	0.000
	61세~70세	34(38.6)	54(61.4)		
	71세 이상	6(13.0)	40(87.0)		
최종 학력	초졸 이하	31(29.5)	74(70.5)	10.559	0.014
	중졸	34(39.1)	54(60.9)		
	고졸	42(46.2)	49(53.8)		
	대학 이상	20(57.1)	15(42.9)		
결혼 생활 년수	15년~19년	2(18.2)	9(81.8)	24.596	0.000
	20년~29년	47(55.3)	38(44.7)		
	30년~39년	45(43.3)	60(56.7)		
	40년~49년	26(37.7)	43(62.3)		
	50년 이상	7(14.3)	42(85.7)		
현재 의 직업	노동·기타(무직)	54(38.0)	88(62.0)	13.948	0.030
	제조업·공업·광업	5(22.7)	17(77.3)		
	농·임·축·수산업	24(35.8)	43(64.2)		
	서비스업	19(43.2)	25(56.8)		
	사무직	8(72.7)	3(27.3)		
	행정직·전문기술직	3(75.0)	1(25.0)		
	전문직	4(80.0)	1(20.0)		
본인 건강 상태	나쁜편이다	21(26.9)	57(73.1)	7.969	0.019
	보통이다	52(41.3)	74(58.7)		
	좋은편이다	54(47.0)	61(53.0)		
배우자의 건강 상태	나쁜편이다	19(20.2)	75(79.8)	21.471	0.000
	보통이다	54(47.0)	61(53.0)		
	좋은편이다	54(49.1)	56(50.9)		
가족 형태	부부가족	64(42.7)	86(57.3)	9.062	0.028
	핵가족	50(43.5)	65(56.5)		
	확대가족	4(14.3)	24(85.7)		
	기타	9(34.6)	17(65.4)		
주관적 생활 수준	잘사는편이다	21(60.0)	14(40.0)	14.237	0.001
	보통이다	88(42.1)	121(57.9)		
	어려운편이다	18(24.0)	57(76.0)		
월 수입	50만원 미만	38(38.4)	61(61.6)	23.900	0.001
	51만원~80만원	11(20.4)	43(79.6)		
	81만원~10만원	15(30.0)	35(70.0)		
	111만원~140만원	11(42.3)	15(57.7)		
	141만원~170만원	16(55.2)	13(44.8)		
	171만원~200만원	13(56.5)	10(43.5)		
	200이상	23(62.2)	14(37.8)		
사회활동	그렇다	45(54.2)	38(45.8)	9.715	0.002
	아니다	82(34.7)	154(65.3)		

연령에 따른 부부교육 부부동반참여의향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 ).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 교육에 부부가 함께 참여한다고 하였다. 학력에 따른 부부교육 부부동반참여의향에는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P=0.014$ ).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교육에 부부가 함께 참여한다고 하였다.

결혼생활년수에 따른 부부교육 부부동반 참여의향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 ). 결혼년수가 19년 이하와 50년 이상인 집단은 부부동반참여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년 이하는 아직 노년기 부부교육의 필요성을 적게 느끼고, 50년 이상의 집단은 노년기 부부교육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하는 등 인식이 다를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20~49년 사이의 부부는 가능하다면 부부동반참여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사료된다.

현재의 직업에 따른 부부교육 부부동반참여의향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30$ ). 사무직, 행정직·전문기술직,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보다 부부동반참여의향을 나타냈다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부부교육 부부동반참여의향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9$ ). 본인의 건강상태가 보통이다와 좋은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부부교육에 부부가 함께 참여한다고 하였다.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부부교육 부부동반참여의향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 ).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은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

들이 부부교육에 부부가 함께 참여한다고 하였다.

가족형태에 따른 부부교육 부부동반참여의향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28$ ). 부부가족과 핵가족인 경우가 부부교육에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주관적 생활수준에 따른 부부교육 부부동반참여의향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 즉, 주관적 생활수준이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보다 부부교육에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월수입에 따른 부부교육 부부동반참여의향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 월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부부교육에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사회활동에 따른 부부교육 부부동반참여의향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2$ ).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부교육에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노년기 부부교육 부부동반참여의향은 연령, 결혼생활년수, 배우자의 건강상태, 주관적 생활수준, 월수입 등이 높은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 종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8)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교육 부부동반불참여유

부부교육 요구의 하위영역 중에서 부부교육 부부동반불참여유를 살펴보면 【표2-8】과 같다.

【표2-8】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교육 부부동반불참여유

변인	구분	싫어함	시간×	관심×	어색함	만족해서	변화×	기타	x2	P
연령	50세~60세	16(13.9)	61(53.0)	11( 9.6)	10( 8.7)	10( 8.7)	2( 1.7)	5( 4.3)	55.200	0.000
	61세~70세	12(24.0)	15(30.0)	9(18.0)	4( 8.0)	2( 4.0)	7(14.0)	1( 2.0)		
	71세 이상	5(13.2)	4(10.5)	5(13.2)	6(15.8)	4(10.5)	3( 7.9)	11(28.9)		
결혼 생활 년수	15년~19년	1(10.0)	8(80.0)		1(10.0)				54.586	0.000
	20년~29년	4(8.3)	29(60.4)	7(14.6)	2( 4.2)	4( 8.3)	1( 2.1)	1( 2.1)		
	30년~39년	12(18.2)	28(42.4)	6( 9.1)	7(10.6)	6( 9.1)	2( 3.0)	5( 7.6)		
	40년~49년	10(26.3)	8(21.1)	8(21.1)	5(13.2)	3( 7.9)	2( 5.3)	2( 5.3)		
	50년 이상	6(14.6)	7(17.1)	4(9.8)	5(12.2)	3(7.3)	7(17.1)	9(22.0)		
본인 건강 상태	나쁜편이다	14(24.6)	12(21.1)	6(10.5)	6(10.5)	5( 8.8)	8(14.0)	6(10.5)	24.051	0.020
	보통이다	13(15.9)	34(41.5)	14(17.1)	8( 9.8)	6( 7.3)	2( 2.4)	5( 6.1)		
	좋은편이다	7(10.8)	34(52.3)	5( 7.7)	6( 9.2)	5( 7.7)	2( 3.1)	6( 9.2)		

배우자의 건강상태	나쁜편이다	15(20.3)	16(21.6)	11(14.9)	9(12.2)	6( 8.1)	8(10.8)	9(12.2)	21.931	0.038
	보통이다	11(15.7)	34(48.6)	10(14.3)	6( 8.6)	5( 7.1)	2( 2.9)	2( 2.9)		
	좋은편이다	8(13.3)	30(50.0)	4( 6.7)	5( 8.3)	5( 8.3)	2( 3.3)	6(10.0)		
가족형태	부부가족	12(14.1)	26(30.6)	13(15.3)	11(12.9)	7( 8.2)	4( 4.7)	12(14.1)	42.004	0.001
	핵가족	9(11.5)	45(57.7)	7( 9.0)	7( 9.0)	6( 7.7)	1( 1.3)	3( 3.9)		
	확대가족	8(34.8)	3(13.0)	3(13.0)	1( 4.3)	2( 8.7)	4(17.4)	2( 8.7)		
	기타	5(27.8)	6(33.3)	2(11.1)	1( 5.6)	1( 5.6)	3(16.7)			

연령에 따른 부부교육 부부동반불참여유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 ). 61~70세인 사람들은 부부교육 부부동반불참여유로 배우자가 싫어할 것이라고 하였고 50~60세의 사람들은 배우자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였다. 이는 부부교육에 대한 인식이 되어있지 않고 나이들어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 어색한 감정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교육에 대한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결혼생활년수에 따른 부부교육 부부동반불참여유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 ). 29년 이하 사람들은 배우자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였다.

본인의 건강상태( $P=0.020$ )와 배우자의 건강상태( $P=0.038$ )가 보통이다와 좋은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 모두 부부동반불참여유로 배우자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

가족형태에 따른 부부교육 부부동반불참여유에도 유의한 차이( $P=0.001$ )를 보였는데 핵가족형태의 경우 불참여유로 배우자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였다. 이는 핵가족인 경우 자녀의 독립이 끝나지 않았으리

라고 생각되며,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되는바 시간이 없어서 부부동반참여가 어렵다는 가장 큰 불참여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의 한편으로는 부부교육 불참여유가 '만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고 상대가 싫어할 것 같아서'라는 것이 주된 이유로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부관계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상대가 시간이 없거나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반하지 못한다는 의견과 소수이긴 하지만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에도 응답한 결과를 볼 때 노년기 부부교육에 대한 효과성 검증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9) 부부교육 내용과 중요도

부부교육 내용과 중요도는 일반적으로 노년기 부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내용과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부교육내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2-9】와 같다.

【표2-9】 노년기 부부에게 필요한 부부교육내용과 중요도

내 용	노년기부부에게 필요한부부교육내용			중요도		
	빈도	열%	순위	빈도	열%	순위
심리적 변화와 위기	95	29.5	17	45	14.0	16
배우자에 대한 이해증진	178	55.3	4	56	17.4	14
부부관계 새롭게 만들기	148	46.0	11	109	34.0	4
부부의 역할	164	50.9	7	55	17.1	15
성생활	69	21.4	19	78	24.3	9
성격 이해하기	165	51.2	6	94	29.3	6
생활습관 바꾸기	110	34.2	16	83	25.9	8
아들,며느리와 잘지내기	158	49.1	8	194	60.4	1
노후생활준비	214	66.5	2	20	6.2	19

경제관리와 돈벌이	90	28.0	18	130	40.5	3
자신을 잘 아는 것(자아정체감)	112	34.8	15	74	23.1	10
애정·감정표현 방법	124	38.5	14	68	21.2	11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178	55.3	4	42	13.1	18
부부 건강관리와 영양	252	78.3	1	61	19.0	13
기분 좋은 대화법	202	62.7	3	105	32.7	5
여가활동(취미, 모임, 봉사활동)	149	46.3	10	68	21.2	11
좋은 조부모 되기	135	41.9	13	158	49.2	2
원만한 대인관계형성하기(친척, 친구관계)	151	46.9	9	88	27.4	7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136	42.2	12	43	13.4	17
기타	3	0.9	20	2	0.6	20

일반적으로 노년기 부부에게 필요한 부부교육내용으로는 '부부의 건강관리와 영양(78.3%)', '노후생활 준비(66.5%)', '기분좋은 대화법(62.7%)' 등의 순이었으며,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부교육내용은 '아들, 며느리와 잘지내기(60.4%)', '좋은 조부모되기(49.2%)', '경제관리와 돈벌이(4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부부교육내용과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내용이 상이한 것은 부부관계보다 자녀, 며느리, 손자녀와 관련된 가족관계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주의 가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노년기 부부교육을 연구 영역에서 제외시켜 온 원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내용 중 4위에는 공히 부부관련 내용으로, '부부갈등 해결하는 방법, 배우자에 대한 이해 증진, 부부관계 새롭게 만들기' 등을 지적하고 있고, 다음으로 성격이해하기, 부부역할 등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래의 노인은 단독가구를 형성해서 살기

를 원하고 있으며 교육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갖게 될 것이며, 개인의 삶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가 강해지리라고 볼 때 부부관계를 증진시키는 교육에 더욱 관심이 증대하리라고 사료된다.

### 3. 부부역할이 부부교육요구에 미치는 영향

부부역할이 부부교육요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부교육의 필요성, 참여의향, 교육시간대, 부부동반참여의향 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부부역할이 부부교육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부부교육 요구의 하위영역 중 부부교육 필요성에 대한 부부역할의 영향을 본 결과는 【표3-1】과 같다.

【표3-1】 부부역할이 부부교육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β	T	P	R2	F	P
상수	3.722		10.210	0.000			
전통적	-0.249	-0.163	-2.999	0.003	0.071	12.285	0.000
근대적	0.196	0.185	3.401	0.001			

부부역할은 전통적(p=0.003), 근대적(p=0.001)역할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부부역할은 부부교육 필요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근대적 부부역할이 높을수록 부부교육필요성이 높

게 나타나 앞의 결과와 일치된다.

#### 2) 부부역할이 부부교육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부부교육 요구의 하위영역 중 부부교육 참여의향

에 대한 부부역할의 영향을 본 결과는 【표3-2】 과 같다.

【표3-2】 부부역할이 부부교육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S.E.	OR	P	R2	$\chi^2$	P
상수	-2.080	0.858	0.125	0.015			
전통적	0.889	0.208	2.432	0.000	0.127	31.419	0.000
근대적	-0.383	0.136	0.682	0.005			

노년기 부부의 부부역할이 부부교육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통적부부역할(P=0.000)과 근대적 부부역할(P=0.0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전통적부부역할(B=0.889)이 높을수록, 근대적부부역할(B=-0.383)이 낮을수록 부부교육 참여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역할이 전통적인 경우가 근대적인 경우보다 2.432배, 부부교육 참여의향이 높았다.

부부역할이 전통적일수록 부부관계 증진의 필요성

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부부역할이 부부교육 시간대에 미치는 영향

부부교육의 선호하는 교육시간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구축한 결과 우도(likelihood)를 최소화하는 각 변수의 추정계수 값은 【표3-3】 와 같다. 모형의 적합함을 나타내는  $\chi^2$  값은 17.635, 유의확률이 0.007로 95% 신뢰수준에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3】 부부역할이 부부교육 시간대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S.E.	OR	P	R2	$\chi^2$	P
오전9~12시/ 오후1~4시	상수	-3.166	1.130		0.005			
	전통적	0.928	0.258	2.530	0.000			
	근대적	0.102	0.176	1.107	0.564			
오전9~12시/ 오후3~6시	상수	-0.436	1.096		0.691			
	전통적	0.376	0.258	1.457	0.144	0.054	17.635	0.007
	근대적	-0.161	0.170	0.851	0.342			
오전9~12시/ 오후6시이후	상수	-1.935	1.412		0.171			
	전통적	0.255	0.323	1.290	0.430			
	근대적	0.121	0.224	1.129	0.588			

모형의 추정결과, 기본범주(baseline category)가 오전9~12시인 경우 오후1~4시 의 선택확률은 전통적부부역할이 높을수록( $\beta=0.928$ ), 오후1~4시를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부역할이 부부동반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부부교육 요구의 하위영역 중에서, 부부동반참여의향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3-4】 와 같다.

【표3-4】 부부역할이 부부교육 부부동반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변 수	B	S.E.	OR	P	R2	$\chi^2$	P
상 수	0.467	0.853	1.596	0.584			
전통적	0.432	0.195	1.540	0.027	0.061	14.839	0.001
근대적	-0.370	0.139	0.690	0.008			

부부역할이 부부교육 부부동반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통적 부부역할( $P=0.027$ )과 근대적 부부역할( $P=0.008$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즉, 전통적 부부역할이 높고( $B=0.432$ ) 근대적 부부역할( $B=-0.370$ )이 낮을수록 부부교육 부부동반참여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부부역할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1.540배 부부동반참여의향을 갖고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노년기 생활주기의 연장으로 더욱 중요해진 노년기 부부관계의 증진을 위한 노인의 부부교육에 대한 요구를 밝혀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부교육프로그램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동안 부부교육에 대한 연구가 거의 중년이나 젊은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노년에 대한 연구는 적기 때문에 의미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역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역할은 전통적과 근대적 역할로 나뉘었으며, 대부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은 부부역할에 유의한 변인들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이면서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고, 결혼생활년수가 길수록, 종교가 없는 경우, 과거나 현재의 직업이 농축산업에 종사할 경우, 본인의 건강상태가 나쁘고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전통적부부역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면서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생활년수가 짧을수록, 핵가족을 이루고, 종교를 갖는 경우 근대적부부역할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된 결과이다.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교육 요구

부부교육의 필요성은 연령이 낮고 결혼년수가 짧으면서 종교를 갖는 경우, 핵가족이고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비교적 중노년에 가까운 연령층이면서 핵가족을 이루며 사는 경우로 앞으로 함께 노년기를 보내야 할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리라고 추측할 때 부부관계증진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교육 참여경험은 젊었을 때 경험했던 것으로 배우자가 건강하고, 사회활동을 한 경우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었다. 건강과 사회활동여부는 적극적인 생활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부부교육 참여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결혼생활년수가 짧을수록, 행정·전문직종사자이었던 본인과 배우자가 건강하고 월수입이 높은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판단되며 이들이 보다 질 높은 부부관계증진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부부교육요구참여의향을 지닌 부부들의 특성이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고,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주로 교육요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교육이라는 것이 일부 갖추어진 계층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편견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부부관계교육내용에서 필요성의 순위는 건강 외 부부관련내용이었으나 중요도의 순위에서는 가족 및 친족관계관련 내용으로 응답한 것도 부부교육에 대한 인식이

아직 되어있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식변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호하는 참여시간대에 대한 요구는 60세미만은 오후6시 이후라고 응답하였으며 낮동안의 사회활동이나 직업생활을 고려했음으로 보여진다.

교육량은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으며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1시간미만을, 학력이 높고 본인과 배우자가 건강한 사람은 1~2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교육량은 평균 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정해져야 하며, 대상에 따른 교육량에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선호하는 교육진행방식은 연령이 높고, 결혼생활년수가 길며 확대가족인 경우 전문강사의 강의를 듣는 수동적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동반참여의향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고, 핵가족이면서 주관적 생활수준이나 월수입이 높은 사람이 부부동반으로 교육에 참여하고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의 참여의향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인과 같은 것으로 보아 본인이 부부교육 참여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교육의 불참여이유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싫어할 것이다, 배우자가 시간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연령이 높은 경우 불참을 하겠다는 것은 오랜 세월동안 적응하고 살아온 부부인데 새삼 교육을 받는 다는 것이 어색하고 무용하다고 생각하는데서 온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는 과거 노부부가 함께 보내야할 기간이 짧았을 때의 고정관념에서 온 것으로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 노년기의 과업임을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부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는 '부부의 건강관리와 영양'이 가장 높은 요구를 보였으며, '노후생활준비', '기분좋은 대화법', '배우자에 대한 이해증진 및 부부 갈등해결방법', '성격이해하기', '부부역할'의 순서로 나타났다. 노인에게는 부부관계증진에 앞서 건강이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부부간의 대화나 이해, 갈등해결,

성격이해 등의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 부부관계증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교육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에는 '아들·며느리와 잘 지내기', '좋은 조부모 되기', '경제관리와 돈벌이'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교육내용요구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노인들이 교육을 받고 싶은 것과 실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로 가족간의 관계를 부부관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주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부부간의 행복이 다른 가족원들에게도 행복을 준다는 가치를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3. 부부역할이 부부교육요구에 미치는 영향

부부역할은 부부교육요구의 변인 중에서 부부교육의 필요성, 교육참여의향, 부부동반참여의향, 교육시간대 등의 변인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근대적인 부부역할이 부부교육요구에도 높은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부부역할이 근대적인가 전통적인가는 교육의 참여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를 미리 준비하는 사회적 경향과, 노년기 부부교육요구라는 노인들에게 다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란 점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중년인 50세 이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노인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 대상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노년기만을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본 연구는 부부역할과 부부교육요구를 살펴봤으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생활동안 형성된 자존감이나 생의 만족 등 기타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본 연구는 부부교육과 노년기라는 두가지점이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적절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노년기부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가 전반적인 노년기 주요 발달과업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사회, 가족, 친족, 여가, 재테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며, 부부관계에만 초점을 둔 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점은 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라 노년기의 부부관계가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증진이라는 것이 노인에게는 새삼스런 주제로 그동안 여겨져 왔던 탓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4. 노인에게 있어서 노년기 부부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에 앞서 조사자들로 하여금 설명이 있는 후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노인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었을지에 대한 것은 사전조사가 없었으므로 앞으로 노인에게 노년기 부부관계증진을 위한 교육에 대한 의식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5. '시간이 없어서나 변화가능성이 없어서'에 응답한 참여의향과 불참여의유를 결과물 볼 때 부부교육의 효과성 검증에 통한 홍보전략이 요구된다.

6.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다양한 결과를 참고하여 교육 참여대상자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7. 교육대상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시간대에 대한 융통성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 투고일 : 2004년 8월 10일

### 참고문헌

1. OECD, 2004- 인터넷.
2. 김경신(1996). 노인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노년학연구회, 5, 51-70.
3. 김선우(2002). 노년기 부부의 의사소통행동과 결혼 만족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태연 · 전길양(1997). 노년기 부부의 상호간 지지와 역할공유,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71(2).
5. 박진옥(1994). 도시중산층 부부의 자기역할인지와 상호역할기대에 관한 연구 : 전업주부 가정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손승영(1994). 노부부의 가족구성 및 가족관계. 노인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서울:사회문화연구소. 255-291.
7. 송영미(2000). 노년기 부부관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신혜섭(1985). 도시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수행에 관한 실태조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이가옥(2000). 노년기의 삶의 질. 성공회대학교, 세계노인의 날 기념 제6회 학술세미나.
10. 이신숙(1997). 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7(2). 70-84.
11. 장혜영(1981). 가족주기에 따른 부부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전길양 · 임선영(1998). 노년기 부부갈등과 우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8(2), 1-12.
13. 정영희(1992). 현대사회에서의 부부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 기대와 실재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홍은정(1995). 부부의 성역할 분리에 관한 연구 : 기혼남성의 가족생활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홍계영(1999). 노년기 부부의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Anderson, T. B.(1993). Conjugal support among working-wife and retired-wife couples. In Szinovacz, M., Ekerdt, D. J., & Vinick, B. H. (Eds). Families and Retirement. 174-188 Berverly Hills. CA: Sage
17. B Parsons(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London:Great Britain, 45-49.
18. Connidis, i. A( 1989). Family ties and aging. Toronto & Vancouver: Butterworths.
19. Gilford, R.(1986). Marriage in later life, Generations, 10, 16-20.
20. Lee, G.R.(1978). Marriage and moral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0.131-139.